

12 월의 기도편지 올려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러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문성호 목사님과 라이프크릭교회 러시아 선교 동역자 모든분께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문안인사와 더불어 기도 편지 올려 드립니다. 여긴 현재 수은주가 영하 20 도-영하 10 도를 오르락 하여 제법 겨울의 매운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이 되어서 이곳도 인플렌자 바이러스가 극성이라 많은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기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1 월 26 일 주일에는 달란트 잔치가 있어서 그런지 유치부와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60 여명의 어린이가 복적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후에 있을 달란트 잔치를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모두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악산나 전도사님이 PDF 로 준비한 생명의 말씀과 영상을 두 귀를 쫓긋하며 들으며 아멘으로 아이들이 화답하는 모습이 천국 잔치를 보는 듯 하여 주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러시아는 2015 년 태러방지법을 만든 이후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직접 자기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교회 참석 동기부여를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중국 인터넷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에 주문을 하여 공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중이라 루블이 자꾸만 급락하여 달란트 잔치 물건 구입비용도 덩달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 여명의 달란트 잔치 비용이 35 만원 가량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 회 물건 구입 비용이 50 만원 가량으로 치솟아 1 년 전체 지출 비용이 300 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일학교 교사들은 모두 힘써 기도중에 있으며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며 힘써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추운 겨울에도 각 시골 지역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심방하고 또래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시골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 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한국도 5-60 년대에는 너무나 추워 한겨울이 두렵기만 했는데 이곳 러시아 아이들이 겨울을 맞아서 30K, 혹은 50KM 떨어진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출석하는 이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시골에서는 버스가 하루에 몇차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교회 출석 하려면 아침 일찍 8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3-5KM 걸어가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탑니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오고 또 버스를 타는가 살펴보고자 주일 아침 일찍 시골에 가보았습니다.

도시보다 시골은 수은주가 5 도가량 더 떨어지는데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은 친구를 기다리며 종종 걸음으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면서 눈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성령께서 저 아이들을 만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 추운 겨울에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이 교회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 저는 다른 봉사자와 함께 이제는 직접 시골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교회로 자동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일 아침 시간이라 바빠 서둘러야 예배 시간이 늦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바쁘지만 고사리 같은 손을 호호 불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이들을 성령께서 교회 갈 마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그리고 오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집에 까지 데려다 주느라 오후 6 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 옵니다. 배가 고프 터에 집에서는 따끈한 된장국과 김치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 또한 꿀맛입니다. 주일 하루를 지켜 주시고 은혜 배풀어 주신 크신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 드리고 오 선교사와 함께 석식을 맞이하니 이 또한 천국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2023년 12월 4일 러시아에서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올림.

김건수, 오미영 선교사 2023년 12월의 기도 제목

1. 저희 부부가 더욱 성령충만하여 섬심을 다하여 러시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미영 선교사의 아픈 허리가 치료되어지고 김건수 선교사의 코로나 후유증으로 상한 폐 섬유화가 이 겨울에 더 진행되지 않도록.
2. 민민가 사역과 시골의 어린 빈민 아이들에게 겨울 나기 지원과 더불어서 주일학교 전 아이들에게 성탄절 축하 선물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1년간 사용할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 선물 구입비용이 채워지도록.
3. 봄이 되면 북녘의 형제들이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에 노동하고자 쏟아져 들어 올 터인데 미르교회에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길.
4. 한국서 신학대학원 유학공부를 마친 초이 블라디슬라브 전도사의 목사 안수 받는 문제와 주 파송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차세대 사역자로 잘 세워져서 러시아 선교와 북녘땅의 사역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5. 전쟁으로 인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소원한 중에서도 주의 크신 은혜와 도움 따라서 교회 복음 사역이 흔들림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 주소: 692500 RUSSIA PRIMORY REGION USSURIISK st. TIMIRYAZEBA 77. X.P.P CHURCH .

* 이메일: kunsoo-ru@daum.net . 러시아 핸드폰: 7-924-522-0077 / 인터넷 전화 070-7565-1891



